

▶ 달러/원 주간 전망

• 방향정보다는 변동성 구간..美 관세 영향 확인하기

서울, 4월21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트럼프 관세정책 관련 이슈와 경제 영향을 살피며 박스권 내 변동성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405-1435원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트럼프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피로감이 상당하지만 이전과 같은 높은 변동성 장세에는 벗어났다. 미국 행정부가 과격한 관세정책에서 한발 물러나 개별국가와의 협상 국면에 들어선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도 추후 전개상황을 확인하려는 관망심리를 보다 많이 반영하는 모습이다.

순탄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가능성에 대한 시장 기대도 스멀스멀 재형성되는 가운데 이번 주 역시 이와 관련한 뉴스 헤드라인 따라 시장은 갈지자 행보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통상문제에 관한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전주 미국과 관세협상을 가진 일본은 금번 논의에서 환율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제2의 플라자 합의인 '마러라고 합의' 가능성에 대한 시장 경계감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만큼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들어가는 한국의 경우도 환율 정책에 관한 관심은 유지될 전망이다.

달러/원 환율은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전후 레벨인 1410원대로 떨어진 뒤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다. 광범위한 달러 약세가 진행되지 않는 한 환율이 다음 지지선인 1400원을 하향 이탈하는 시도는 당장은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주도 최소 1조원 이상의 외인 배당 수급 변수가 있다. 작년 8월부터 9개월째 계속되는 외인 주식자금 유출세가 꺾이지 않는 한 원화 강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미국 관세 정책 발효에 앞서 적극적인 밀어내기 수출이 걸린 이후 한국의 4월 수출 성적과 1분기 GDP 속보치 등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암울한 경제전망 속 딱히 호재를 찾을 수 없는 원화는 당분간 방향정보다는 변동성에 치우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혼란에 따른 첫 번째 지표로 꼽히는 미국 4월 S&P 제조업 및 서비스업지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또한, 테슬라와 알파벳 등을 포함한 주요 미국 기업실적도 주목된다.

아울러 파월 연준 의장 해임을 검토하고 있는 백악관의 입장 이후 달러가 유의미한 반응을 보일지도 지켜봐야할 변수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세계 이슈

• 中 금리 결정, 테슬라 실적, 4월 PMI 등

런던, 4월18일 (로이터) - 금융 시장이 관세 우려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경제 타격을 완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국과 전 세계 기업 활동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미국의 고립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춘계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1. 중국 금리 결정

중국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막대한 관세로 인한 역풍을 상쇄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중국의 추가 통화 완화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기준 대출 금리를 발표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인민은행이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1년 및 5년 대출우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는 현재 100%가 넘는 놀라운 수준이며, 일부 은행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이미 중국 성장을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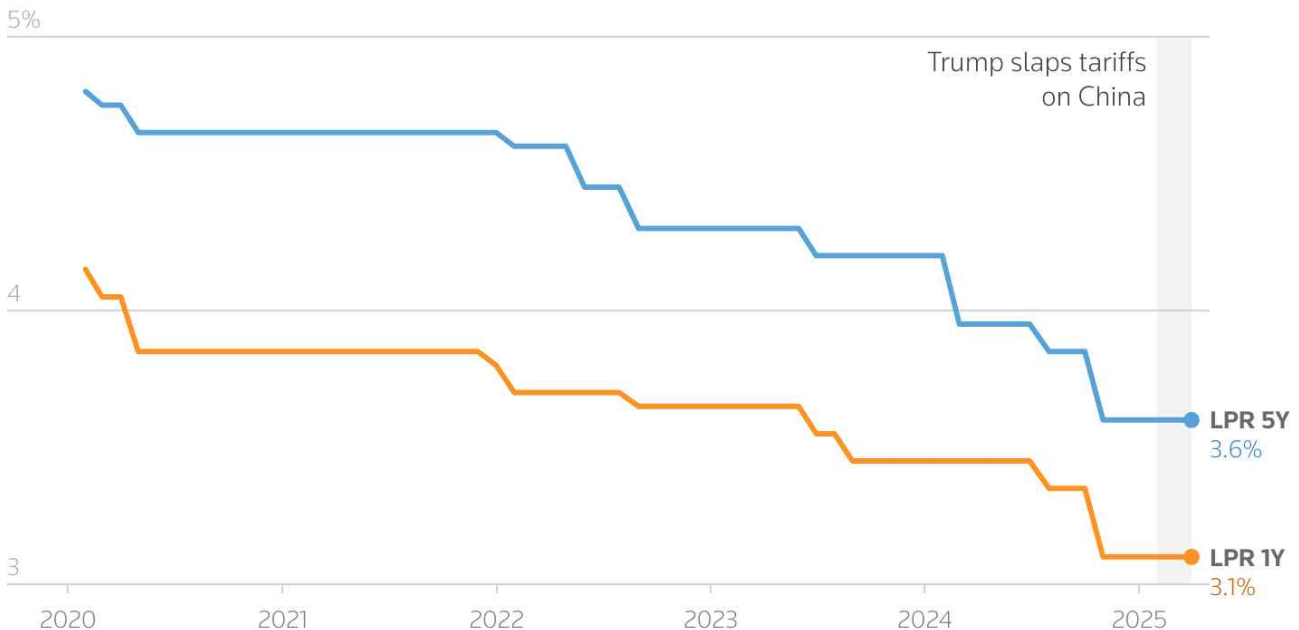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수요일에 회의를 열 예정인데, 정책 입안자들은 사상

최저치 부근의 루피아화와 어두운 경제 전망을 저울질하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전망이다.

Eyes on China rate decision

Market focus is on how Beijing will buffer China's economy from U.S. tariffs.

Loan Prime Rates (LPR)



Source: LSEG Datastream

Kripa Jayaram • April 16, 2025 | REUTERS

2. 테슬라와 알파벳 실적 발표

다음 주에 발표될 테슬라(TSLA.O)와 알파벳(GOOGL.O)의 분기 실적은 미국 기업들이 변화하는 무역 환경과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

일론 머스크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와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 중 처음으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관련 지출이 또 다른 초점이 될 것이며, 2025년 주가가 특히 큰 타격을 입은 테슬라는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수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3M MMM.N, 보잉 BA.N, IBM IBM.N, 머크 MRK.N, 인텔 INTC.O, 프록터 앤 갬블 PG.N 등 주요 기업의 보고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관세 여파에 대한 경영진들의 통찰력을 기대할 것이다.

Is Elon Musk's EV party over?

Tesla has emerged as the worst performer among the Mag 7 stocks.

Year-to-date change in Mag 7 stocks



Note: Data through Apr. 15, 2025

Source: LSEG Datastream

Kripa Jayaram • April 16, 2025 | REUTERS

3. 4월 PMI

수요일의 4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트럼프의 관세 혼란으로 인한 첫 번째 타격을 시장에 알려줄 것이다.

트럼프는 상호 관세를 연기했지만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10% 관세 부과는 남아 있다. 미국 기업들의 투입 가격은 최근 조치 이전에 이미 타격을 받고 있었고, 캐나다의 서비스 PMI는 5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해야 할 수치는 미국 제조업 PMI 투입물가 지수로, 이 데이터를 집계하는 S&P글로벌은 이를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한 첫 번째 지표라고 부르고 있다.

이미 3월에 거의 2년 만에 가장 빠른 미국 기업들의 투입물가 상승률을 보여줄 정도로 급등했다.

트레이더들은 올해 최소 세 차례의 미국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감안할 때 그러한 인하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A tariff test for global business activity

Composite Flash Purchasing Managers' Index (PMI) across major economies.

Expansion > 50 > Contraction

Last 12 months	Apr. 2024	May	Jun.	Jul.	Aug.	Sept.	Oct.	Nov.	Dec.	Jan. 2025	Feb.	▼ Mar.
U.S.	51	54	55	55	54	54	54	55	57	52	50	54
UK	54	53	52	53	53	53	52	50	51	51	51	52
Australia	54	53	51	50	51	50	50	49	50	50	51	51
Germany	51	52	51	49	49	47	48	47	48	50	51	51
Euro zone	51	52	51	50	51	49	50	48	50	50	50	50
Japan	53	52	50	53	53	53	49	50	51	51	52	49
France	50	49	48	50	53	47	47	45	47	48	45	47

Source: LSEG Datastream
Kripa Jayaram • April 16, 2025 | REUTERS

4. IMF/세계은행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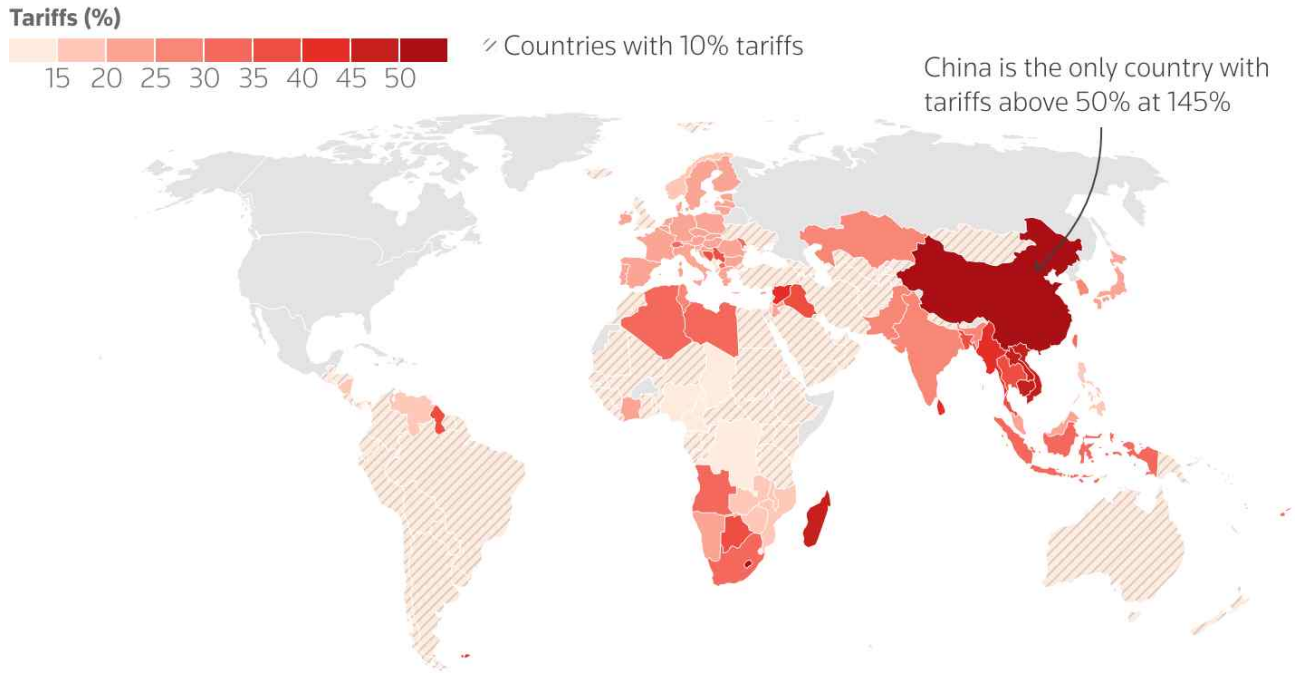
금융 당국자들이 연중 가장 큰 정책 결정자 모임 중 하나인 IMF/세계은행 춘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향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성장이 초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의 면담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무역 긴장과 어두운 성장 전망이 초점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브레튼우즈 기구에서 미국의 역할과 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

화요일에 발표될 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경제 전망도 주요 안건 중 하나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이미 미국의 전면적인 관세 부과가 "중대한 위험"이라고 지적하며 미국과 무역 파트너들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을 호소했다.

Who is hit hardest by proposed US tariffs?



Note: This graphic now reflects figures from the Annex of the executive order, except for China which was raised further later, correcting discrepancies found in earlier White House communications.

Source: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Pasit Kongkunakornkul • April 16, 2025 | REUTERS

5. 불안

투자자들은 관세로 인한 최악의 혼란이 지나갔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미국 증시는 1년여 만의 최저치에서 반등했고, 회사채 스프레드는 (약간) 회복되었으며, 29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시장의 기능 장애 징후도 완화되었다.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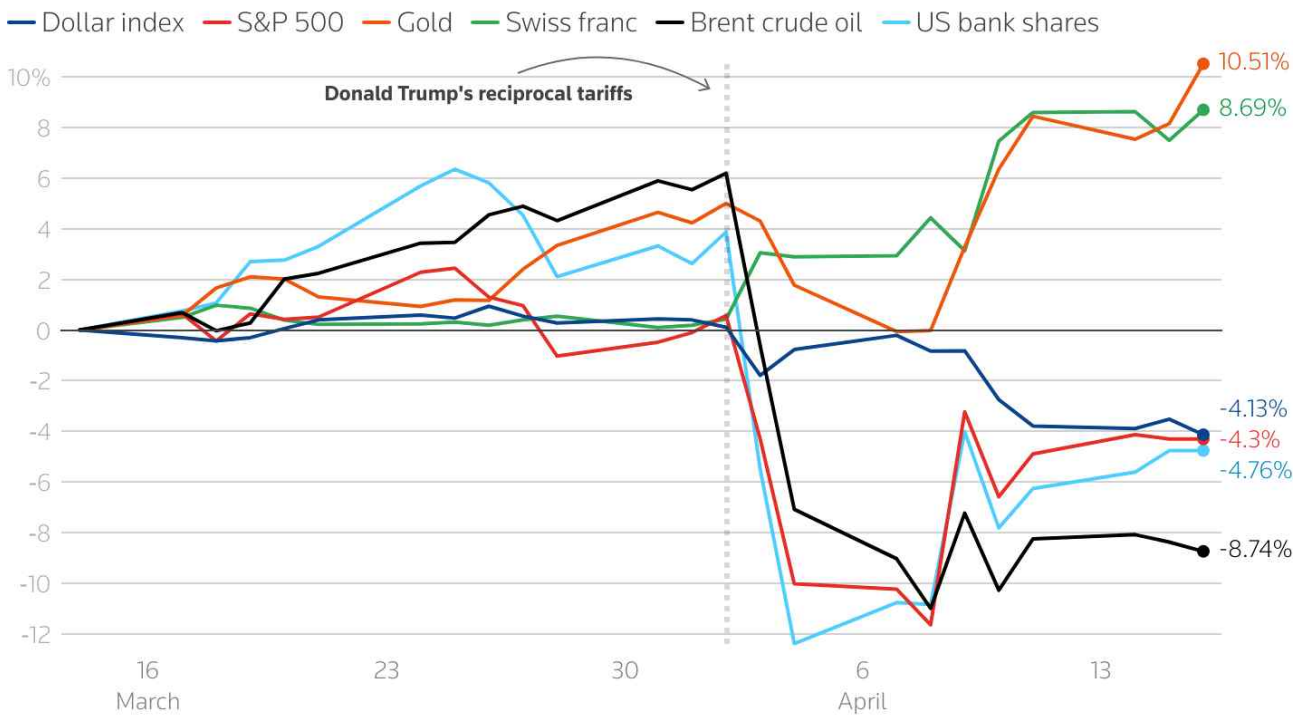
그러나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관세가 남아 있고 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초점은 워싱턴에 고정되어 있다.

달러는 여전히 2022년 이후 최악의 달을 향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난 두 달 동안 미국 주식 보유량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줄였다고 BofA는 말했다. 도이치은행은 외국인 투자자 배분의 지속적인 변화가 "엄청난 마이너스 달러 흐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시장은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단 추세가 형성되면 빠르게 되돌리기 어렵다.

The tariff divide: Safe havens shine, U.S. assets, oil tumble

Asset price performance over the past month.



Note: Prices as of April 16

By Dhara Ranasinghe • Source: LSEG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Keywords: GLOBAL-MARKETS/THEMES (GRAPHIC)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분주한 美 실적 주간..파월 압박하는 트럼프 여파도 주목

뉴욕, 4월21일 (로이터) -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 기업 실적은 무역 정책으로 흔들리고 있는 주식시장을 시험할 전망이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 놀란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S&P500 지수(.SPX)는 2월 최고점에서 14% 하락했지만, 여전히 역사적 수치의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테슬라(TSLA.O)와 구글 모기업 알파벳(GOOGL.O)은 '매그니피센트 7' 기업 중 하나로, 투자자들이 관세 여파를 찾으며 실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IG 북미의 CEO이자 온라인 브로커인 테이스티트레이드의 사장인 JJ 키나한은 "향후 전망에 관한 CEO의 관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고 말했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함에 따라 계속 변화할 관세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품에 대한 가장 높은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했지만, 미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과의 무역 전쟁 중이다.

로이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난달 25%에서 45%로 높였다.

전주 투자자 관심을 끈 유나이티드 항공(UAL.O)은 경기 침체 시 매출과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를 시나리오 중 하나로 제시했다.

오는 22일 실적을 발표하는 테슬라가 주목받는 이유는 트럼프의 밀접한 관계 때문일 것이다.

인공지능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관심 속 투자자들은 알파벳의 인공지능과 관련 자본 비용과 광고 지출

에 대한 세부 사항을 주시할 것이다. 지난주 목요일 구글은 온라인 광고 기술의 두 시장을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은 올해 모두 급격히 하락했고, 이중 알파벳은 약 20%, 테슬라는 40% 각각 떨어졌다.

중국이 자국 항공사에 보잉사의 제트기를 더 이상 인도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보잉 BA.N 실적도 주목받고 있다. IBM IBM.N, 머크 MRK.N, 인텔 INTC.O, 프록터 앤 갬블 PG.N 등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LSEG IBES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이익 성장을 전망치는 하락했다. S&P500 기업 이익은 올해 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연초 예상했던 14% 증가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빠를 수록 좋다고 말하면서 시장 관심은 연준에 쏠렸다. 하루 전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금리를 변경하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Keywords: USA-STOCKS/WEEKAHEAD (SCHEDULED COLUMN, PIX)

▶ 주간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서울, 4월21일 (로이터) - 이번 주 국내 주요 경제 일정:

** 4월21일(월)

- 관세청: 4월1일~20일 수출입 현황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14:00)
- 한국은행: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WBG 춘계회의」 (워싱턴 D.C, 19-29일)
- 한국은행: 이수형 위원 일본 출장(BOJ·동경대, 21-24일)

** 4월22일(화)

- 한국은행: 2025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06:00)
- 한국은행: 2025년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2: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워싱턴 D.C, 22-27일)

** 4월23일(수)

- 한국은행: 2025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 한국은행: 2025년 3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2:00)

** 4월24일(목)

- 한국은행: 2025년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한국은행: 202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08:00)
- 기획재정부: G20 재무장관회의 1일차 및 주요 인사 면담 결과 (14:00)
- 기획재정부: 1차관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14:30)
- 한국은행: 2025년 5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 (17:00)
- 기획재정부: 2025년 5월 국고채, 재정증권,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계획 (17:00)

** 4월25일(금)

-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10:00)
- 기획재정부: G20 재무장관회의 2일차 및 주요 인사 면담 결과 (11:00)
- 한국은행: 2025년 1/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동향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4월21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4월21일	10:00	중국	대출우대금리 1Y	4월		3.10%
4월21일	10:00	중국	대출우대금리 5Y	4월		3.60%
4월22일	23:00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	4월	-15.6	-14.5
4월23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4월		48.4
4월23일	17: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잠정치	4월	47.5	48.6
4월23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4월18일 주간		267.5
4월23일	21:00	미국	건축허가건수 수정치	3월		1.482M
4월2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4월	49.4	50.2
4월2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4월	52.8	54.4
4월23일	23:00	미국	신축주택판매	3월	0.680M	0.676M
4월24일	21:30	미국	내구재주문	3월	2.0%	1.0%
4월24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월14일 주간	221k	215k
4월24일	21:30	미국	전미 활동지수	3월		0.18
4월24일	23:00	미국	기존주택판매	3월	4.13M	4.26M
4월25일	08:30	일본	도쿄 CPI	4월		2.9%
4월25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4월	50.8	50.8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4월21일 (로이터)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4월21일 (월)

- ◎ 오스틴 골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CNBC 인터뷰 (오후 9시30분)
- ◎ 휴장국가: 호주, 홍콩, 독일, 영국 등

4월22일 (화)

- ◎ 필립 제퍼슨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후원 행사에서 연설 (오후 10시)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후원 행사 간담회 참석 (오후 10시30분)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서밋 참석 (23일 오전 3시)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RVA 빅디퍼 이노베이션 서밋 간담회 참석 (23일 오전 3시30분)
-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미네소타대에서 연설 (23일 오전 7시)

4월23일 (수)

-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24일까지)
-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후원 행사 화상 연설 (오후 10시)
-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주최 "연준이 듣는다" 행사 개최 (오후 10시35분)
- 배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뉴욕대 머니마켓이어에서 연설 (24일 오전 7시30분)
- 연준 베이지북 (24일 오전 3시)

4월24일 (목)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미네소타대학교 행사 참석 (25일 오전 6시)

4월25일 (금)

- IMF-세계은행 춘계회의 (26일까지)
- 휴장국가: 호주, 뉴질랜드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기재부, 국내기업 외화채권 발행 윈도우 1주로 확대

서울, 4월15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기획재정부가 외화 조달 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국내기업의 재량권을 크게 늘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 확대로 글로벌 발행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외화 조달에 나서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5일 IB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는 국내기업들이 외화채를 발행할 때 배정받는 수요예측 일정, 즉 윈도우(window)의 기간을 기존의 이틀에서 일주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외환당국인 기재부는 그동안 윈도우 배정을 통해 기업의 외화채 발행 일정을 관리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외화 조달에 영향을 미쳐왔다. 윈도우 기간이 통상 이틀만 제공됐기 때문에 기업들은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도 뻣뻣한 일정 아래 외화 조달 계획을 짜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윈도우 기간이 1주일로 확대됨에 따라 외화 조달 일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내기업의 재량권이 커지게 됐다.

발행사의 한 관계자는 "외화채 발행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선 작년 하반기부터 논의가 있었다"라며 "기재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이미 전달받았고 현재 그렇게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한국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단행한 바 있다.

이같은 외환시장 선진화 노력은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았다.

시장에선 이번 윈도우 확대 조치 역시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해 외화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시장 선진화 조치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업이 외화채 발행 일정을 결정하는 재량권이 커지는 만큼 조달 쏠림 등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부의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다른 시장의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금까지 외채 부담 때문에 외화채 발행을 타이트하게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외화 조달에 있어 시장 자율성을 늘리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고 말했다.

(편집 박예나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칼럼)-트럼프의 파월 해고, 반영하기에는 너무 큰 리스크

제이미 맥기버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드, 4월18일 (로이터) - 글로벌 무역전쟁과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 의장 해임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함을 알고 있는 이슈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해서 제대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리스크이기도 하다. 즉, 시장에 미리 경고는 할 수 있지만 미리 대비하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목요일 소셜 미디어에 "파월의 임기 종료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쓰고, 기자들에게 연준 의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자신이 2017년 직접 지명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불화를 부각시켰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파월 의장에 대한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 공격은 너무 많아서 지친 투자자들이 그것들을 무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된다.

목요일 트럼프의 공격은 대법원이 두 개의 연방 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을 임기 만료 전에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으로, 일부 변호사와 애널리스트들은 이같은 결정이 파월과 같은 연준 관리들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파월은 수요일 이것이 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미국과 세계 시장에 매우 위험한 순간에 이루어졌다. 달러와 국채에 대한 믿음,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 미국 기관과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낮다.

이는 미국 채권 시장의 '기간 프리미엄'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 투자자가 단기 대출을 롤오버하는 대신 미국 정부에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 대해 다소 이례적인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기간 프리미엄은 10년 만의 최고치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 않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믿음은 현대 금융 시스템의 기본이다.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인기와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2010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통화 정책에 대한 정치적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은 호황-불황 사이클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경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다."





상황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투자자들이 이러한 리스크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간 프리미엄은 상승했지만 연준의 독립성에 실제로 의문이 들 때 치솟을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리스크가 너무 막대하고 잠재적 결과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다. 무역 전쟁이 본질적으로 그런 상황이다. 관세는 트럼프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경제 정책이었으며, 그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트럼프가 스스로를 "관세맨"이라고 칭한 것은 괜한 말이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트럼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전면적인 글로벌 무역전쟁의 리스크를 반영할 명확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해방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날이 찾아온 후에도 시장은 여전히 크게 요동쳤다.

S&P500 지수는 15% 급락해 단 3일 만에 미국 주식 시가총액에서 6조 달러가 사라졌다. 미국 채권 시장의 장기물도 폭락하여 30년물 수익률이 1982년 이후 주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달러는 3% 하락했다.

미국 국채와 달러는 일반적으로 금융, 경제 또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상승하기 때문에 국채와 달러의 하락은 특히 놀라웠다. 금과 스위스 프랑은 수십 년 만에 최고의 한 주를 보냈지만, 미국의 '안전자산'은 폭락했다.

이는 백악관과 연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다. 트럼프가 내년 5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실제로 파월 의장을 해임한다면 투자자들은 경고 신호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건 아마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 따른 결과가 너무 커서 미리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Keywords: ECONOMY-TRADE/TARIFFS (BREAKINGVIEWS, REPEAT, COLUMN, GRAPHICS)